| 불자 세상보기 |

자녀에게 '인격의 책' 선물하세요



이미령
불광불교대학 전임강사
불교칼럼리스트

자녀 동반 서점 방문 증가
훼손 서적도 그만큼 늘어나
부모의 비양심적 행위에 눈살

독서는 다른 세상 바라보는 창구
삽화는 부모 행동, 글자는 부모 말

"아이가 서점서 읽은 책 기억할까?
서점서 함께한 행위를 기억할까?"
기억 남는 인격 전달이 부모의 화두

아이를 데리고 서점 나들이하는 부모가 많다. 성공한 사람은 대체로 책을 많이 읽었고, 책 속에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도 있으니, 내 아이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을 들이려는 바람이다.

방송에서 날마다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내게 이따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묻는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책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다. 이 세상에는 책보다 재미있는 게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책 읽기의 즐거움을 공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래도 책읽기를 권한다. 책을 읽으면 현명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다는 일은 몇 백 페이지에 걸쳐 빼곡하게 쓰인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는 일이다. 글자라는 배를 타고 맥락이라는 너울을 타면서 어느 사이 한 권의 책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이의 심정이 되어보기도 하고,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경험을 얻는다.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해 과거의 사례를 이끌어 와서 분석해보고, 자신만의 관점이 아닌, 전혀 다른 관점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게 된다. 부분적인 면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살피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챙긴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책이요, 책 한 권을 온전히 읽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현명해진다.

그래서 예로부터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책 사는 데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자녀들은 어른이 되어서 그런 부모를 떠올리며 고마워하고, 부모는 입히고 먹이는 데에는 궁색했을지라도 책 사주는 데에 아낌없이 돈을 지불한 자신의 교육방식을 자랑스레 여긴다.

어린 자녀들을 서점에 데리고 온 부모를 볼 때면 부모 맘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 아이들은 책더미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책을 읽기도 하지만 책이 있는 공간을 맘껏 즐긴다.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뿌듯함은 말해 무엇할까.

그런데 서점이 속앓이를 하고 있단다. 견본서적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굳이 비닐포장을 찢고, 책을 훼손하는 일이 너무 잦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이 신간서적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부모가 나서야 하는데, 방기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자신과 아이가 훼손한 신간을 몰래 내려놓거나, 훼손했으니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가 서점직원이 거절하자 사지 않고 가버리기까지 했다니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일이 지금 서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반품된 책은 고스란히 출판사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라는데, 영세한 출판사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연 아이는 자라서 부모와 서점에 가서 읽은 책 내용을 더 기억할까 아니면 서점에서 부모와 함께 한 행위들을 더 기억할까.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편의를 위해 마련된 책들을 소중하게 다루고 행여 자신이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부모의 행위가 아이 가슴에 더 깊이 새겨지지 않을까.

지금 아이들은 구태여 부모가 책 한 권을 내밀지 않아도 이미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그건 부모라는 책이다. 그 책에 그려진 삽화는 부모의 행동이요, 빼곡하게 쓰인 글자는 부모의 말이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인생의 책 한 권이 있다. 옛 스님 한 분은 "내게 한 권의 경이 있는데 종이나 먹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네. 펼쳐보면 글자 한 자 없지만 언제나 커다란 빛을 내고 있네"라고 노래했다. 그 책을 평생 꺼내 읽으면서 온전한 인격으로 완성되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어떤 책으로 평생 남을까. 서점에 들어서면서 부모가 품어야 할 화두가 아닐까한다.



기자칼럼

백년대계본부를 지켜라

윤호섭 취재부 기자

오늘(8월 30일) 예정돼 있던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미래세대위원회 출범이 연기됐다. 부족함 없이 준비해 잘 알리고 확실히 미래세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문득 지하철역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흔히 보는 '느리더라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라는 팻말이 떠오른다.

거두절미하고, 요즘 백년대계본부는 소위 '열일(열심히 일한다)' 하고 있다. 미래세대위원회 출범 준비뿐만 아니라 백년대계를 디자인하기 위한 사부대중공사, 조계사 정진법당 기도 입재 등 많지 않은 인원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 중이다. 물론 열심히 일한다는 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열일' 의 의미는 달라진다.

공직사회나 종교단체 등 관료제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면 구성원들은 새로운 수장의 선출을 앞두고 조용하게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기 마련이다. 차기 집행부의 성향을 알 수 없어 거대한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실시하기엔 부담이 뒤따르니 별 수 없는 도리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백년대계본부의 최근 행보는 가히 독보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년대계본부를 향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종령기구' 이기 때문에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로 운명이 정해진다는 한계가 있어서다. "다음 총무원장 때 문 닫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종법기구로의 격상이 필요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차기 집행부가 뜻을 잘 이어받아 백년대계본부라는 수레바퀴를 계속 굴려야만 한다. 그러려면 백년대계본부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 일련의 활동들이 이를 입증해가는 모양새다.

'일년수곡 십년수목 백년수인(一年樹穀 十年樹木 百年樹人)'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 중 관자(管子)의 가르침이다. '1년 뒤를 내다보며 곡식을 심고, 10년 뒤를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 뒤를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 는 뜻이다.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지만 지금의 조계종과 불교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백년대계본부에 어울리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백년대계본부는 이제 씨앗을 뿌린지 고작 7개월 지났다. 곡식이었다면 이미 추수하고도 한참 지났을 시간이지만 단체명에 맞게 100년을 내다봐야 하니 어미젖도 떼지 못한 어린아이인 셈이다. 그만큼 주위의 관심과 지지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분명 현재로써 차기 총무원장은 누가 될지 예단할 수 없고, 백년대계본부의 운명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차기 집행부가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이를 나무란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종권이 바뀌더라도 백년대계본부는 유지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 멀리 돌아왔다. 혹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할 스님이 이 글을 읽는다면 한 번쯤 되새겨주시길 바란다.

굳이 사족을 달자면 백년대계본부는 정규직보다 계약직 종무원이 더 많다. 그럼에도 선거라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종단 발전을 위한 일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박수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社說

불교 무형유산 발굴이 중요하다

다비 · 가사 · 사찰 단오 행사 등 보존 가치가 높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인 불교 무형문화유산을 조계종 종단 차원 보존에 나선다고 한다.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는 8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서 무형분과 회의를 열고 불교무형문화유산 종단 지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성보보존위원회는 △불복장 작법 △다비 △통도사 단오용왕재 △해인사 단옷날 소금 묻기 △불교지화 △가사 등 6개 문화유산에 대해 종단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찰과 단체가 보유한 불교 무형문화유산을 종단 차원서 지정해 보존에 나서는 것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2013년 12월 제정된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 에 따른 것으로 "총무원장은 전승되고 있는 불교무형문화유산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불교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종단 불교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6조)"고 명시돼 있다.

해당 종령 제정 이후 조계종 문화부와 성보보존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종목을 추천 받거나 자체 발굴에 나섰다고 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종단 차원 지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불교는 유 · 무형 문화재의 보고이다. 특히 무형 유산의 경우 불교 전통 의례부터 풍습까지 다양하다. 어쩌면 일상 사찰에게는 너무 일상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아주 작은 풍습도 보존해야 한다. 시대 변화로 인해 단절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는 종단과 사찰 차원에서 무형 문화유산 발굴에 나서야 한다. 전통은 인식하고 지켜나갈 때 그 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불교중앙博 10주년에 부쳐

'불교문화 수호와 보존' 를 기치로 2007년 건립된 불교중앙박물관이 10주년을 맞았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으로 자리한 불교중앙박물관은 그동안 불교문화재 보존과 관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특히 전국 40여 성보박물관과 성보박물관협회 등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지원 및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불교문화재 관리의 중심을 맡고 있기에 그만큼 남은 과제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불교계에 불교문화재 관리나 보존에 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4년 감사원 조사는 불교계에 충격을 선사했다. 국보로 지정됐음에도 방치된 불교문화재가 대거 지적됐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바로 인력 부족이었다. 규모가 작은 사찰 성보박물관의 경우 학예사와 전문인력 없이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사중 스님들의 노력으로 불교문화재들이 보존되고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더라도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불교문화재 보존 환경 개선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을 확충, 인력 배양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불교계도 문화재 관리를 보존 측면에서 인력 배양으로 넓혀 저변확대에 나서야 한다. 그 중심은 10주년을 맞은 불교중앙박물관이 맡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알려가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우리 문화재의 60%는 불교문화재다. 불교중앙박물관의 지난 10년이 이런 불교문화재를 지키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불교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을 위한 저변확산의 근간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